

[고려대] ICR센터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연구 세미나

경향신문 | 기사입력 534403903<#<=5;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소장 유진희, 이하 ICR)는 6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각국 경쟁당국 IPR Licensing 가이드라인의 비교 및 종합정리’라는 주제로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려대 ICR센터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의 법적 규제」라는 제목 아래, 지금까지 1회의 Prologue와 지난 3월의 소프트웨어산업, 4월의 IT산업, 5월의 제약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3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IPR Licensing 가이드라인을 비교하면서 세미나 시리즈를 종합 정리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연구재단이 사회과학의 통섭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Social Science Korea 사업의 「법과 경제」 연구팀과 공동 주최한다.

이 날의 세미나 제1부에서는 미국 Constantine Cannon 로펌 Kerin Coughlin 변호사의 "U.S. Competition Guidelines for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Overview and Comparison with Korean Guidelines"을 시작으로, Meng Yanbei 중국 인민대 교수(법학과)가 "Regulating and Limiting the Regulation: Research on IP Licensing from China's Antimonopoly Law – Concurrent discussion over formulation of China's Guidelines for Anti-monopoly Enforcemen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김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 및 개선방향"을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박환성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경쟁당국의 IPR Licensing Guideline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발표하고, 1부의 마지막 순서로 노상섭 과장(공정거래위 시장감시총괄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IPR guideline 운용현황 및 향후 과제"을 주제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제 2부에서는 모든 발표자 및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충곤 LG전자 상무(IP센터), 김봉섭 변리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태만 특허청 과장(산업재산정책과)과 홍대식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발표진에 참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및 기업들도 발표와 토론에 나서게 되어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세진/인터넷 경향신문 대학생 기자 (웹場 baram.khan.co.kr)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한국가수 뜨자 프랑스 드골공항 발칵!

▶ 현직 경찰간부 “등록금집회 자유 보호돼야”